

6/28(화) 시편 105–106편 주의 나라 기쁨에 동참하기 [구속사 시편]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에 가까이 닿을 때,

진정한 감동과 감격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료부터 ex nihilo,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nothingness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Maker, 95:6–7). 베나드 앤더슨, 시편의 깊은 세계
인간은 역사 속, 실제적 경험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되어갑니다.

특별히 <출애굽>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대적 관문입니다.
대적들과 억압의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자자손손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재현하는 이유입니다.
조상들과 현 세대는 <출애굽>이라는 인간의 실존 앞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같은 감격을 공유하게 됩니다.

생존과 생계, 신앙의 문제들로 가득 찬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이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실수와 실패, 회개와 구원 역시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공유된 역사 shared history>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구속사 history of salvation>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106:4–5)”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 ❶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며, 그분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 ❷ 말씀이 먼 과거의 일입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생생한 현재입니까?

시편4권 (90–106편)

편	유형	편	유형
90	공동체 탄식시	99	찬양시
91	신뢰의 노래	100	찬양시
92	개인 감사시	101	왕조시편
93	찬양시	102	찬양시 요소를 지닌 개인 탄식시(참회)
94	공동체 탄식시	103	찬양시
95	찬양시	104	찬양시
96	찬양시	105	구속사 시편(찬양시)
97	찬양시	106	구속사 시편
98	찬양시		